

제 3 장 사도 행전 Tape #8092

자 이제, 흥미진진한 3 장을 펴 봅시다. 2 장 43 절을 읽어보면, 모든 혼 위에 두려움이 임하고 사도들을 통하여 이적과 표적이 많이 일어나더라고 되었고, 그래서, 이제 3 장으로 들어가 보면, 놀람과 표적들 중 하나가 우리를 위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에서 발생한 많은 일들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1 절 “이제 아홉 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성전으로 올라갈 때에,” 유대인들은 하루 중 기도하기 위하여 세 번씩의 기회를 가졌는데, 이는, 아침 아홉시와 정오 열두시와 오후 세시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세시의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후의 기도 시간이란 말이죠.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기 위해 성전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주의와 구별하여 자신들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예배하러 성전에 갔습니다. 이스라엘 국가의 종교생활의 중심 장소는 여전히 성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 장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사람을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우리는 누구나 마음속에 하나님으로부터 사용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에도, 하나님께서 그 분의 목적을 성취하시는데 나의 삶을 사용해 주시기를 얼마나 바라고 있는지 모릅니다! 가장 흔히 할 수 있는 질문 중에 하나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 사용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것에서 멀어진 삶은 정말 공허할 뿐입니다. 내가 해야 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무엇인가? 내가 할 수 있는 영원한 가치는 무엇일까?

여기에 하나님께서 사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성격을 노트하는 것은 재미있는 일입니다. 당연히 맨 앞에 있어야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쓰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삶을 사용하시길 내가 원한다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필요한데, 더욱이 내가 매일 접촉해야 합니다. 그 분의 인도를 구해야 할 필요가 있고, 또한 그 분의 협의를 구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 분의 지시에 대항하여 독자적으로 움직이거나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의 사람들은 인도를 위해, 능력 주심을 위해, 지혜를 위해 기도로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2 절 “사람들이 모태로부터 한번도 걸지 못하는 한 사람에 매어 오니 이 사람은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제해 줄 것을 간청하게 하려고 날마다 아름다운 문이라 하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오늘날에도 중동 지역에 가 보면 걸인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신체적으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다마스쿠스 문 곁에, 특히 사도 스테반의 문 곁에 있습니다. 그들은 고대 이스라엘 도시의 문에 들어가려는 자들로부터 돈을 구걸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매일 성전 앞의 한 자리에 데려다 놓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전에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돈을 구걸합니다. **3 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하는 것을 보고 구제해 줄 것을 간청하거늘,”** 얼마의 돈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4 절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그를 눈여겨보며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5 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기대하여 주의를 기울이거늘,”** **6 절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7 절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곧 그의 발과 발목뼈가 힘을 얻고,”** 여기서 이 사람은 40 세쯤으로, 걸코 걸어 본 적이 없는 사람이며, 매일 그 문 앞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사람들은 널리 그를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사람에게 믿음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 걸인에게 말하기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네게 말하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려 하니 일어나 걸으라! 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기를,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아들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내가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실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분에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혀로 고백하게 할 것입니다.

신약성경에서, 예수의 이름이 마귀의 힘을 대항하는 것으로 사용되어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책의 뒤에서 보게 될, 스게바의 일곱 아들들(행 19:13-16)은 사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을 묶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일곱 아들들이 악한 영에 붙들린 사람을 데려다가 말하기를, 바울이 선포하는 예수님을 힘입어 우리가 너희에게 엄히 명하노라고 했지만, 그 악한 영이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가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너희는 누구냐? 하니, 그 악한 영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그들을 놀려 이기니 그들이 벌거벗고 상한 채로 그 집에서 도망하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예수의 이름이 악한 영을 대항하는데 사용되었음을 보여준 예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정말 치유가 필요한 자들을 치료하는데 사용되어졌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오른손으로 그 사람을 잡아 일으켜 그의 발에 힘을 얻게 했다는 것은 믿음의 위대한 일인 것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당신 스스로가 그와 같은 일을 하리라고 상상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의 마음을 스치고 지나

간 것이 과연 무엇이였을 것이라 상상합니까? 나는 내 마음에 스치고 지나갈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서 있기를 바랍니다! 그가 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신도 알겠지만, 만약 이 사람이 넘어져 버린다면 장애인에게 참혹한 비난을 받을 것인데! 어떤 상황 안에서 어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믿음의 은사가 있다는 것을 신약성경 고전 12 장에서 가르치고 있다고 나는 믿습니다. 언제나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려고 하시는 것을 우리의 마음을 확실하게 하실 바로, 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은 우리에게 특별한 믿음을 주시어, 영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는 강한 감명으로 담대히 내딛게 하십니다.

여러 해 전에 갈보리 채플은 몇 불락 떨어진 곳의 작은 교회에서 예배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주일 아침 예배 후에, 내가 서있는 곳으로 몇 명의 젊은이들이 그들의 할아버지를 휠체어에 태워 가지고 와서, 할아버지에게 기도해 주기를 나에게 요청했습니다. 나는 사도행전 3 장을 열고, 앉은뱅이였던 사람이 일어나고, 걷고, 발에 힘을 얻었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의 말씀을 한 베드로의 행위에 대해 읽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들의 할아버지를 위해 기도했고, 그는 휠체어에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동안 강한 감동을 가졌는데, 그것은 믿음의 말씀을 하고, 그를 일으키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아니, 아니, 아니죠! 라고 반응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너무 강하여 나는 그렇게 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일어나 걸으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나는 그를 휠체어에서 일으켜 세웠고, 그는 발로 섰습니다. 그는 걷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통로에서 그는 앞으로 걸어가더니, 이내 빠른 걸음으로 되돌아 왔습니다. 손자들은 실제로 어깨동무를 하며 야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아주 흥분했던 거죠. 우리는 당신에게 할아버지의 감기에 대한 치유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는 요청을 하려고 했는데... 그는, 당신도 알다시피, 5년 동안이나 걷지를 못했거든요. 물론 우리 모두는 주님의 능력에 즐거워했습니다.

그 다음 주 수요일에 애리조나의 투산의 한 교회에서 설교를 해달라는 초청을 받아 집회가 있었는데, 그 때가 추수감사절 저녁 모임이었습니다. 예배를 마쳤는데, 한 사람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아내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고, 그는, 아내가 중풍을 쓰러졌다고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녀를 치료해 주시도록 기도해 달라고 나에게 요청해 왔습니다.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부부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도록 그녀를 위해 기도하고,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면서 주님의 축복이 있으리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계속 기도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묻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고 넘치게 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고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남편은 그녀를 휠체어에 태우고 교회를 빠져 나갔습니다. 나와 함께 주일 아침에 있었던 아들이 나에게 와서 묻기를, 아빠, 지난 일요일에 그 할아버지에게 했던 것처럼 그녀를 휠체어에서 일으키지 못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라고 하기에, 나는 대답하기를, 나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지!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할 믿음을 나에게 주시지 않았단 말이지요. 분명히 단지 매우 강력한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나는 결코 사람을 휠체어에서 일으키는 것을 연습해 본 적이 없고, 단 한번 그 때에 있었을 뿐입니다. 마땅히 그는 그것을 행하는데 매우 소스라치게 놀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라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과감히 믿음으로 발을 옮기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베드로의 구출에 매우 확신이 있습니다. **8 절 “그가 꺾충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걸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니,”** 당신은 상상할 수 있으리라! 그는 생애에 한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죠! 그의 나이가 약 40 세인데도 말입니다. 그는 갑자기 힘이 생겨, 걷는 것만이 아니라, 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어난 기적에 흥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9 절 “은 백성이 그가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10 절 “또 그가 성전의 아름다운 문 앞에 앉아 구제해 주기를 바라던 사람인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몹시 놀라며 경이롭게 여기니라.” 다시 지난 장으로 가보면, 사도들을 통하여 많은 기적과 표적이 행해졌고, 이 사람에게 일어난 것 때문에 경이와 놀라움이 사람들에게 채워졌습니다.

11 절 “그 걷지 못하던 자가 고침을 받고 베드로와 요한을 붙드니 은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다같이 그들에게로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주랑이라는 곳에 이르니라.” 기적 같은 일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어찌 된 일인지 이해를 못하지만, 그것이 온 지역으로 퍼져나갔기 때문에 빠르게 군중이 모여들었습니다. 일을 보려고 일어나, 어찌 되는지 보려고 솔로몬의 주랑이라는 곳에 수천 명이 운집했습니다.

12 절 “이에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대답하되,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어찌하여 이 일을 놀랍게 여기느냐, 어찌하여 마치 우리가 우리 자신의 권능이나 거룩함으로 이 사람을 걷게 만든 것처럼 우리를 이토록 열심히 쳐다보느냐?” 여기 추론이 하나 있다고 노트할 것이 있는데, 마치 베드로와 요한이 특별하고 거룩한 도구처럼 사람들이 그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적을 베드로와 요한에게 연관시키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의 뒷부분에 보면,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설교할 때, 거기에는 약 40 세가 되는 앓은뱅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가 치료를 받고자 하는 믿음이 있음을 감지하고, 큰 소리로 말하기를, 형제여! 예수 그리스도

가 너를 온전케 하셨으니, 일어서라! 고 하면서,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사람들은 신들이 내려왔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것이 여기 사람들의 아주 혼한 반동과 반응입니다. 그들은 ‘우.....’

하며 바라봅니다. 당신은 거의 신과 같이 비슷하며 거룩합니다! 그들은 이들을 놀랍게 거의 우상처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연습하고 싶은 위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개인을 통하여 특별한 방법으로 일하실 때마다 그 개인을 높이실 것이라는 경향으로 아주 쉽게 갑니다. 마치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간 사람처럼 그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 근처에 사람이 있을 때, 경이로움의 미묘한 분위기가 거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들은 올라가, 당신이 알다시피, 그들을 오직 만지고 싶은 것과 같은 어리석고 유치한 일로 발전합니다. 나는 빌리 그래함을 만졌다! 그런 것 말입니다. 도구 자체를 높이기가 너무 쉽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연습하는 사람들의 위험을 생각해 보면, 군중으로부터 종종 아침이나 감탄을 받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당신이 신용을 받기 시작하거나 아침을 용납하기 시작하는 순간, 당신의 사역은 매우 불안정한 위치로 될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그 기적으로부터 즉시 자신을 떼어 놓았는지를 노트해 보세요. 그는 즉시 그것들을 바로 잡았습니다. 어찌하여 우리가 우리 자신의 권능이나 거룩함으로 이 사람을 견게 만든 것처럼 우리를 이토록 열심히 쳐다보느냐? 그것을 하는데 있어,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왜 우리를 그렇게 쳐다보는 것이요? 그리고, 그는 그들이 본 기적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 영광이나 갈채를 구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 자신의 삶을 오직 십자가로 가져가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에 의하면, 갈 2:20 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고 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지금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바울은 골 3:4 에서,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그 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에 나타나리라고 언급했습니다. 갈채를 찾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영광을 바라보는 자들도 아닙니다. 사람을 유인하지 않거니와, 그들에게 사람이 유인되도록 바라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에게 영광 돌리기를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주되고 훌륭한 바람은, 그들에게가 아닌, 예수님께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즉시 자신에게서 떨어지도록 강조했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13 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 분을 넘겨주고 빌라도의 눈앞에서 그 분을 거절하였으니 그 때에 빌라도는 그 분을 넘겨주려고 결심하였으나,”* 요한은 자기의 복음서에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노력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요 19:12). 빌라도는 예수님을 저주하기 원치 않았기 때문에 놓아주려고 최선을 다 했으나, 백성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놓을 때까지 빌라도에게 압력을 넣고, 그를 괴롭혔음을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내키지 않는 일이었으나, 그는 끝내 손을 씻고 말았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보라, 나는 이 일들에 대해 손을 씻는다. 나는 오직 이 사람에 대해 깨끗하리라, 너희들이 그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을 그들에게 상기시키고 있는데, 이 분은 너희가 넘겨주자, 빌라도가 그 분을 놓아주려고 결심했을 때, 그의 눈앞에서 거절했던 바로 그 분이라는 것입니다. **14 절** *“너희가 거룩하신 분 곧 의로우신 분을 거절하고 살인자를 달라고 구하여,”* 얼마나 혹독했던 일인가를 그들에게 그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 분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십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그 분을 거절하고, 살인자를 살려달라고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15 절 “생명의 통치자를 죽였도다,”** (진짜 모순의 소리가 아닙니까? 당신들이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셨으니 우리가 그 일에 증인이라.”** 자, 전에 말했지만,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도들에 의해 전파된 복음의 내용입니다. 여기 그것이 있는데, 당신들이 그 분을 죽였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분을 죽음에서 일으키셨고, 그 일에 대해 우리가 증인이야! 우리는 그 분을 보았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실에 대해 증인이 되었지!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야! 부활이 없다면, 당신은 복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고전 15:17 에서 말하기를, 또한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아니하셨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너희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분을 죽음에서 일으키셨습니다. **16 절 “그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강건하게 하였으니,”** (믿음의 사람들, 베드로는 그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을 통하여, 그리고 그의 이름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이 사람이 여기에 완전히 서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노트하기 바랍니다.) **“참으로 그 분으로 말미암은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의 눈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낮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베드로는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그리고 그 분의 이름

을 믿음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믿음의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할 것이기 때문에 그는 거기에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놀라운 사람이 아닙니까? 당신과 같은 믿음을 가지기 바라는데. 그의 믿음 때문에 그를 높이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베드로는 믿음이라는 명성을 기꺼이 얻으려고 하지 않기에, 그는, 그것은 그 분을 통하여 온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따르면, 그 분이 우리 믿음의 저자요, 완성자시라고 합니다(히 12:2). 바울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주셨다고 롬 12:3 에서 말하며, 고린도 서신에서는 영의 은사들을 나열했고, 또한 믿음의 선물들을 열거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것은 하나님의 은사에 대한 실행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내가 앓은뱅이의 발에 힘을 주어 일으켜 세우려고 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은, 그 분으로 말미암아 생긴 믿음으로, 이 사람이 모든 당신들 앞에서 완전한 건강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완전히 돌리기 위하여 그 자신은 파괴되어 버립니다. 주님을 위하여 실행하는 것은 당신의 사역에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그들 위에 무겁고 무거운 실수를 들쳐 내어 보였습니다. 너희가 거룩하신 분, 의로우신 분을 거절하였도다! 빌라도는 그 분을 내놓으려고 했으나, 너희는 살인자를 원하였도다! 이것은 무서운 고발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17 절 “이제 형제들아 너희의 치리자들과 마찬가지로 너희도 알지 못하여,”** (내가 알기로는 너희가 진리에 대해 무지하므로,) **“그리한 줄로 아노라.”** **18 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대언자들의 입을 통하여 미리 보여주신 그 일 곧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실 것을 이같이 성취하였느니라.”**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공부한 것을 기억하겠지만, 베드로는, 하나님의 정하신 목적과 미리 아심으로 넘겨졌거늘 너희가 그 분을 붙잡아 사악한 손으로 취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다시 그가 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 말할 때, 대언자들이 말했거나 하나님께서 그의 대언자들의 입을

통해 예언한 모든 것을 참조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실 것이고, 그분은 그렇게 성취하실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 53 장이나 시 22 편이나, 아니면 메시아의 고난에 대한 다른 성경구절들을 읽어 보면, 성경구절에 대해 그렇게 잘 안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말씀 안에 아주 많이 예언된 메시아의 고난당하실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메시아에게 일어났어야 하는 것을 그들이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을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그들은 통상적으로, 고통을 다루어야 했던 성경구절들은 영화해 버리고, 오직 그분의 영광스러운 통치와 왕국에 대해서나, 그분이 그의 보좌에 앉아 있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구절들만 문자적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분의 고통이나 죽음을 다룬 그 대언들도 마땅히 문자적으로 받아들였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영화해 버렸던 것입니다. 멸시 당하고, 싫어 버린바 된 것들의 구절들은 영화해 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왜 성경구절을 영화하는 것이 위험한 지를 말하는데, 그 이유는 그것을 영화해 버림으로 말미암아 구절의 의미를 쫓아 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성경구절을 영화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모든 것을 어떻게 만들어 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당신이 본문을 영화함으로 그 구절의 의미를 잃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메시아의 고난을 다루는 본문을 가지고 그들이 행했던 것이고, 이는 메시아에게 일어났어야 하는 것으로 대언된, 바로 그 일에 그들이 참여하는데 무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고난당해야만 한다는 것을 전에 그의 대언자들의 입을 통하여 그토록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분은 그렇게 성취하셨습니다.

19 절 “그런즉 너희는 회개하고,” (2 장에서, 베드로가 연설을 마치자, 그들이, 여러분 형제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영광의 주를 못박았으니? 라고 할 때, 베드로는 회개하라, 변화하라고 말했습니다.) **“희심하라, 그리하면 새롭게 되는 때가 주의 눈앞으로부터 이를 때에 너희 죄들이 말소될 것이요”** 자, 나는 이 ‘말소 된다’는 말을 좋아합니다. 특히 그것이 나의 죄에 관련할 때 말소된다면, 은혜롭지 않겠습니까? 존재하지 않도록 만들어 보세요! 당신의 죄가 말소되도록 해보세요! 지난날의 죄책을 신고서 날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저주된 주변으로 갈 필요가 없지요! 하나님께서 과거를 말소하실 것입니다. 과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말소하실 것입니다. 주의 눈앞에 단지 있음으로 새롭게 되는 일이 있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 아닙니까? 당신이 알다시피,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 가끔 육체적으로 매우 피곤한 경우가 있지만, 예배 시간으로 인해 주님의 눈앞에서 새롭게 되고, 힘과 같은 것을 느끼는 때가 있습니다. **20 절 “또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말하죠.) **“보내시리니 곧 너희에게 미리 선포된 분이시니라.”** **21 절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기록한 대언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때 곧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때까지는 하늘이 반드시 그분을 받아들여야 하리라.”** 그는 메시아의 고난을 말할 때 성경구절을 참고했고, 메시아의 영광스러운 통치를 말할 때도 성경구절을 참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하늘에 계셔야만 하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이 그분을 반드시 받아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다루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그분의 첫 번째 초점이 되는 일을 다시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방인의 시대라 부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이 시대는 바벨론 포로 시기인,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의 죽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때로부터, 즉 대략 B.C. 600 년에서부터 지금까지를 이방인의 시대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발에 밟힐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대언이 성취될 아주 가까운 시간과 있는 것 같습니다. 1967년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들어와, 그것을 다시 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차지했기 때문에, 이방인의 때의 끝이 아주 가까이 왔다고 보지만, 내가 믿기로는 교회가 휴거되기 전에는 이방인의 때는 결코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더 시작할 것인데, 하나님께서 아직 이스라엘 백성을 다루어야 할 7년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나라를 다루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와 모습에 대한 복구를 다루시는 이 마지막 7년이 있습니다. 에스겔서의 36, 37, 38, 39 장에서, 그 분은 이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의 후편이라고 보는 40 장에서도 하나님께서 한 때 그의 선택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일하시는 것으로 정하셨던 그 탁월한 장소에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세우시려고 할 때, 이 때를 사용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언젠가 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의 때에 대한 대언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모든 것에 대한 최종 복구라는 이성경구절을 취하여, 그들은 '마지막 복구'라는 이름의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궁극적으로 종말에 모든 사람은 다 구원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탄까지도 와서 회심할 것이라 하며, 당신도 아는 바와 같이,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모든 사람은 하늘나라를 갖게 될 것이라고 하고, 당신 모두가, 당신이 알지만, 모든 것에 대한 마지막 복구, 그것을 만들 것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경전의 구절은 그렇게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시작하신 이래, 그 분의 모든 거룩한 대언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셨던 일들이라고 강조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당신이 만약 돌아가 처음부터 대언들의 요점을 취해 보면, 그것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취하고 계심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호세아 대언자를 봅시다. 당신은 이 이야기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자와 결혼하라고 할 때, 그는 그대로 했습니다. 그 여자는 불성실했고, 집을 나갔고, 간음까지 하였으며, 점점 더 인생의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갔습니다. 하나님은, 가서, 그 여자를 취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세수를 씻기고, 다시 아내로 맞이하라고 하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한 그 분과의 관계를 설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고,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났는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들이 영적 간음을 범했으나,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그 분의 백성으로 도로 찾으실 지를 설교했습니다. 성경구절을 통틀어 보고 또 보면, 대언자들은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하실 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은 이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예수님을 받아두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7년 기간의 마지막에서,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며,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들이 성취되기까지 하늘은 받아두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이 마지막 복구의 초기에 들어갔음으로 날카로운 흥미로 주시하여야 합니다. 당신이 에스겔 36 장을 보면, 이스라엘 산이 다시 모든 종류의 나무로 덮인다는 예언을 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일어났으며, 일어나고 있습니다. 들판에는 열매가 맺히며, 농업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말이지요. 37 장은 다시 한번 국가가 되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이 일어났고, 이제 38 장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을 말하나,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있는 지점입니다. 37 장과 38 장 사이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당신은 이란, 시리아, 러시아, 리비아등, 모두가 힘을 합하여 이스라엘을 침공한다는 것을 읽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에스겔 38 장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시작되었고,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매우 힘이 있게 직접적으로 다루실 때인 그 7년에 가까이 다가와 최고조의 지점에 와 있다고 봅니다.

이것들은 대언자들에 의해 말해진 일들입니다. 22 절 **“이는 진실로 모세가 조상들에게 이르되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들 중에서 나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너희를 위하여 일으켜 세우리니 그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든지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들을지니라.”** 모세의 대언도 메시야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대언자를 세우실 것이라고 그는 말했고, 또한 그 분께 너희는 모든 일들을 들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오늘날 그들의 메시야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이유로 이 모세의 대언을 취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같은 대언자를 세운다고 모세가 말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은 아닐 것이라고 하죠. 그들은, 모세는 단지 사람이다, 그러니 메시야도 오직 사람일 것이라는 논리를 내세웁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것인데, 우리는 그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메시야로서 예수를 거절한다, 이것이 그들의 논쟁이요 이유입니다. 그러나 이사야 9 장은 그 이스라엘에게 어려움을 주는데,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여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강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는 아버지라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라는 말씀 때문입니다(사 9:6). 이것 하나가 그들에게 문제를 던져줍니다. 또한 시 2:7 은,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모든 초기 랍비들은 메시야가 하나님의 아들일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에 의해 십자가 고통을 당하셨을 때, 그는, 네가 메시야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 분이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그것을 말했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때 그들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고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대언 때문에 그들은 메시야를 하나님의 아들과 동등시켰습니다. 이죠. 이것은 후기의 랍비들에

의해 새로운 허구로 발전하는데, 말하기를, 모세가 사람이었으므로 그 분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했던 때(마 16:16),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메시야가 존재했어야 했고, 그들은 옳았으니, 그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셔야만 한다고 그들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에 대해 부인하면서 그 분께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진짜 진퇴양난에 빠진 것입니다.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속아서 랍비인, 쉬니어슨을 메시야라고 믿었는데, 그 이유는 그가 사람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메시야가 사람이 되어야 한다면, 당신은 그가 메시야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가 단지 사람이라면, 어떻게 메시야로서 그를 인식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그것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아마 그들의 충격적인 답은 대체로 그가 우리를 성전 재건하는 데로 인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에 있는 대언을 따라 비추어 보면 차라리 흥미가 있겠습니다(단 9:24-27).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다루시는 70 이레를 가지고 계신데, 그 중에 69 이레는 이미 성취되었고, 70 번째 이레는 이미 오고 있으나, 이미 앞에서 언급한 것이지만, 7년 주기입니다. 이 마지막 7년의 시작에서, 죄의 사람, 적그리스도는 이스라엘 나라와 한 언약을 세우려고 합니다. 이 언약을 통하여 그들의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며 다시 희생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7년의 중간쯤에 와서 그는 새 성전을 더럽힐 것입니다. 그는 대 환란을 가져올 증오를 제공하게 됩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이 자기들에게 와서 성전 재건을 도와줄 사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는 것은 재미있는 일입니다. 적그리스도가 그 언약을 만들면 그것에는 성전 재건의 약정이 있기 때문에, 메시야로, 그들의 구세주로 환호할

준비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며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자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요 5:43). 그들은, 그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든지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들어야 한다는 모세의 대언 때문에, 지금 당장 그것을 위하여 갖추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23 절 “그 대언자의 말을 듣고자 하지 아니하는 혼은 다 백성 중에서 멸망을 당하리라 하였고,” 24 절 “참으로 사무엘 이후의 모든 대언자들과 그 뒤를 이어 말씀을 전한 모든 자들도 마찬가지로 이 날들에 대하여 미리 말하였기 때문이니라.” 이것은 일반적입니다. 물론 처음에서부터 모든 대언들이 통틀어서 끈으로 매여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 시대 이래, 처음부터 모든 대언자들이 그 분이 오시는 것을 말해 왔습니다. 이것이 메시아에 관한, 그리고 메시아의 영광스러운 통치에 관한 대언자의 주제입니다.

그는, **25 절 “너희는 대언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과 맺으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씨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 씨를 통하여 이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창 12:3). 지금 아브라함은, 구약에서 그것들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으로, 메시아가 그의 자손일 것이라고 이해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약속을 되풀이하시는데, 메시아의 권리를 주장하시며,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임을 증명해야만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신약에서 마리아의 가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유입니다. 그녀의 가계를 아브라함으로 돌아가서 보여주고, 이것이 다윗에게 이어지고, 대언들의 요구인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씨를 통하여 그것을 약속 받았습시다. 자, 갈라디아서 3 장에서 16 절은 히브리어로 보면, 단수를 쓰고 있습니다. 즉, 하나의 씨를 말하는 것이지, 많은 씨들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유대 민족이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약속된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 약속은, 모든 민족에게 복을 가져올 아브라함의 자손은, 하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가 오늘날, 아브라함의 씨에서 오신 예수님 때문에 복을 받았습시다. 그래서 대언이 성취된 것이죠! 약속되었던 것으로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축복을 받았습시다.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세상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 복음은 유대인의 것만이 아니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입니다. 그리하여, 세상의 모든 민족은 예수님을 통하여 복을 받습시다!

26 절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일으켜 세우시고 너희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 분을 먼저 너희에게 보내사 너희 각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불법에서 돌아서게 하셨느니라.” 우리를 우리의 불법으로부터 돌아서게 함으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오도록 한 영광스러운 축복을 보고, 혼을 회심케 하는 주님의 법의 완전함을 보고 있습니다(시 19:7). 주님의 판단은 진실하고 다 의로우십니다. 주님의 법은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한 사람의 선함을 위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지 안식일을 위하여 사람이 있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그들의 선함을 위함이었습니다. 당신이 율법을 꼭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완전한 사람에게 주신 것임을 발견합니다. 그것들은 선한 생활, 행복한 생활, 기쁜 생활로 사람을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율법의 목적이었습니다. 오늘날 당신이 법을 살펴보면, 그 분께서 그것들을 보호하셨고, 사회 질서를 보호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만약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킬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약 너희가 나의 모든 규례를 지키면 이집트 사람들에게 내렸던 재앙의 하나도 너희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을

건강하게 만드는 다이어트, 좋은 다이어트를 취급하는 법이 있고, 공중위생을 다루는 법들, 좋은 건강을 위하여 중요합니다. 주님의 율법은 선합니다! 주님의 율법은 완전합니다! 단지 문제는 사람이 주님의 법을 지킬 수 없거나, 지키려고 하지 않는데 있을 뿐입니다. 우리 모두가 모자라거나 죄를 진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 사람 자신이 멸망하는 것을 보호하려고 하셨습니다. 에덴의 동산에 있는 그 나무에 달린 그것을 먹으면 인간 몸의 세포를 부수어 트리기 시작하는 과정의 어떤 화학물질이나 아마도 바이러스 같은 것이 있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그를 완전한 육체적 표본으로 삼아기 때문에, 늙는다는 요소는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아담이 신체적으로 젊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125 살이었지만, 아마 25 살의 나이처럼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를 완전한 신체적 표본으로 창조하셨다는 것과 그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세포가 부서지기 시작하고, 늙는 과정이 시작되는 어떤 것이 열매 안에 있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것을 먹지 말도록 명령하셨다는 말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법을 하나씩 살펴보거나, 십계명을 살펴보면, 그 이면에는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것들은 당신에게 좋은 것입니다. 그것들은 당신을 병으로부터, 또는 사회의 혼란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에 주의하지 않으면, 그 결과, 우리 세상은 바이러스와 질병과 죽음과 고통과 아픔과 사회 무질서와 혼동으로 인해 큰 재앙이 옵니다.

자, 그 분은 우리의 불법을 가져가시고, 대신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저주 아래 살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아래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은혜로운 것인지 모릅니다!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그것으로 사람들을 교육했다는 것은 흥미로운 일입니다.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갔을 때, 그리심 산에 제사장 몇 명과 에발 산에 다른 사람들 몇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법에 적힌 저주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로 시작하는 율법의 여러 성경구절이 적힌 목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았던 자들에게 내리는 저주의 목록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반대로 주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들에게 내리는 축복에 대해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신 27, 28 장). 다시 한번, 오직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과 어떤 행위에 대한 결과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이 이것들을 할 수 있다고 믿고 있으며, 상하지 않거나 해롭지 않다고 믿고 있습니다. 결과로서 고통이 없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것은 틀린 것입니다. 당신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혼을 회심케 하는데 완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선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법을 따르고 복종하기를 구하는 것은 현명한 일일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불법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분 안에서 가지는 새 생명을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지난 일을 지우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당신과 교제하는 기쁨과 유익과 축복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당신을 바라고 있습니다. 의에 주리고 목마릅니다. 주님, 당신이 쓰기에 합당한 도구로 우리를 만드소서. 우리의 삶을 당신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